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現代史的 背景

姜萬吉(高麗大學校 教授)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現代史的 背景

姜萬吉(高麗大學校 教授)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現代史的 背景

姜萬吉(高麗大學校 教授)

1.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背景

解放後 美軍政時期에 形成되어 李承晩政權期·朴正熙政權期를 통해 強化된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根源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支配期에서 찾아져야 한다. 帝國主義 日本이 中世時代까지는 오히려 先進文化의 傳受地域이었던 韓半島를 強制占領하여 植民支配하게 되었을 때 國家테러리즘의 強壓方法을 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은 韓半島를 強占한 初期부터 義兵鬪爭과 愛國啓蒙運動 등을 彈壓하고 植民統治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흔히 武斷統治라 부르는 國家테러리즘을 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國家테러리즘의 支配는 곧 3·1運動의 原因이 되었다.

3·1運動 以後의 1920年代에는 民族主義運動이 持續되는 한편 社會主義思想이 들어오고 그 運動이 民族解放運動의 重要な 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植民地 支配權力의 彈壓 對象이 더 擴大되었으며, 특히 社會主義運動이 蘇聯 및 코민테른과 連結되어 있어서 植民地 支配權力의 그것에 대한 警戒과 彈壓은 계속 強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3·1運動後 日本帝國主義는 所謂 文化政治를 標榜했으나 實際는 亦是 國家테러리즘의 策動에 의한 民族分裂政策일 뿐이었다.

1930年代 以後 帝國主義 日本이 中國大陸 侵略에 나서면서 그 植民地 朝鮮에 대한 國家테러리즘의 支配는 한층 더 強化되어 갔다. 淸室體制로 변한 日本의 國家테러리즘은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으로 확대된 朝鮮人들의 民族解放運動을 沮止하는 데 狂奔하는 한편, 侵略戰爭의 擴大로 人的·物的 窮乏狀態에 빠진 日本은 朝鮮靑年들을 侵略戰爭에 動員하거나 全體 朝鮮의 人的·物的 資產을 戰爭 資源으로 充當하는 데 國家테러리즘을 十分 適用했다.

1930年代 以後의 侵略戰爭時期에는 특히 朝鮮人들의 社會主義運動이 끈질기게 繼續되면서 植民支配體制를 威脅했다. 日本의 國家테러리즘은 그 白色테러의 性格을 強化하여 1936년에는 도이취와 코민테른 活動에 대한 共同對應과 蘇聯에 대한 共同 牽制를 目的으로 하는 反共協定을 締結했다. 이후 日本 淸室體制와 그 植民地 國家權力의 朝鮮社會主義運動에 대한 彈壓은 참으로 苛酷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彈壓에 動員된 下手人들의 大部分은 長期間의 植民支配期間을 통해 統治權力이 計劃적으로 養成한 警察과 軍隊 系統의 朝鮮人 下級 搜查官들이었다. 朝鮮의 解放이 完全 自力으로 또 革命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들 植民地 國家테러리즘의 下手人들은 當然히 肅清되어야 할 存在였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韓半島의 解放은 美蘇兩軍의 38度線을 境界로 한 分割占領으로 오게 되었다. 38度線 以北 蘇聯 占領地域에서는 植民地時代에 民族主義勢力 및 社會主義勢力을 彈壓한 附日勢力에 대해 強力한 肅清을 가했기 때문에 그곳의 많은 附日勢力이 以南으로 移住하게 되었다. 그러나 38度線 以南 地域을 占領하여 軍政을 實施한 美國은 그곳에 優越한 左翼勢力을 統制하고 親美資本主義國家를 樹立하기 위해 38度線 以北에서 越南해 온 過去 附日勢力의 相當한 部分을 오히려 民族主義勢力 및 社會主義勢力을 彈壓하는 데 利用했다.

韓半島地域에서의 國家테러리즘은 1910年代에는 帝國主義 日本이 朝鮮의 民族主義運動을 彈壓하기 위해 成立되었고 1920年代 以後에는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으로 형성된 民族解放運動을 彈壓하는 役割을 다했으며, 1930年代에는 한편으로 朝鮮의 人力과 物力을 侵略戰爭 資源으로 動員하는 데 利用되었다. 그리고 日本 帝國主義가 敗亡한 後에도 美軍政에 의해 如前히 韓國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을 彈壓하고 附日勢力 中心의 親美資本主義國家를 樹立하는 役割을 다했다는 점에 그 反歷史的 特徵이 있다.

2.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役割

日帝 強占時期에 根源을 두고 있는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解放後의 時代的 狀況에 따라 그 役割이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解放과 함께 實施된 1940年代 後半期 美軍政時期의 韓國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日帝強占時代 國家테러리즘을 그대로 이어받아 反共主義를 標榜하면서 民族解放運動에 參與했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의 政權參與를 封鎖하는 役割을 다했다. 美軍政은 國內의 左右翼 統一戰線에 의해 成立된 朝鮮人民共和國를 承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海外에서 돌아 온 民族主義勢力 中心의 大韓民國臨時政府도 承認하지 않고 國內의 地主勢力 및 附日勢力을 중심으로 組織된 軍政을 實施했다.

美軍政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 民族統一國家가 아닌 分斷國家를 성립시키는 役割을 다했다. 解放後의 韓國 政界에서는 國內에서 活動했던 社會主義勢力과 주로 海外의 民族解放運動戰線에서 돌아 온 民族主義勢力 사이에 統一戰線 結成을 통한 統一民族國家를 樹立하려는 運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美軍政은 反共主義에 基礎하여 社會主義勢力을 積極的으로 彈壓하는 한편, 1947年의 '트루만 독트린' 以後 韓半島問題를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에 따라 解決하기로 했던 蘇聯과의 約束을 어기고 蘇聯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半島問題를 UN으로 移管함으로써 結局 南韓만의 單獨選舉를 먼저 實施하여 分斷國家가 成立되게 했다.

1948年에 成立되어 1950年代의 韓國을 統治한 李承晩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日帝強占時期와 美軍政時期 國家테러리즘의 路線을 繼承하여 그 보다 한층 더 強力한 極右反共主義와 反北韓主義를 樹立하는 役割을 다했다. 李承晩政權이 成立되기 以前까지만해도 南韓社會에도 左翼勢力이 어느 程度 存續했고, 所謂 中間派로 불린 民族主義勢力이 相當數 남아 있었다. 그리고 北韓政權 및 그 住民에 대한 敵對意識도 아직은 成立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李承晩政權이 極右勢力 中心의 強力한 反共主義 政策을 편 結果 左翼勢力은 말할 것도 없고 中間派로 불린 民族主義勢力까지 徹底하게 肅清되어 갔다. 예를 들면 民族解放運動戰線에서의 代表的 民族主義者 金九가 北韓政權과의 妥協에 의한 統一民族國家 樹立路線을 堅持한 理由로 暗殺되었다. 以後 6·25戰爭을 거치면서 平和統一論은 利敵論으로 看做되었고 反共主義·反北韓主義가 加一層 強化되면서 이 反共主義가 民族主義로 紛飾되어 갔다.

李承晩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로 日帝強占時代의 附日勢力에게 免罪符를 주는 役割을 했다. 35年間 日本 帝國主義의 強占에서 解放된 韓國社會에 처음으로 成立된 政權은 民族解放運動勢力이 擔當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그 政權이 當面한 重要한 歷史的 課題中的의 하나는 日帝強占時代의 附日勢力을 徹底히 肅清하여 民族的 主體性을 確立하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 民族解放運動勢力은 左右翼을 莫論하고 附日勢力 肅清問題에 意見이 一致되어 있었다.

그러나 美軍政에 뒤이어 附日勢力을 基盤으로 成立된 李承晩政權은 議會가 制定한 附日勢力 肅清法, 즉 反民族行爲者處罰法을 廢棄하다시피 함으로서 以後 韓國社會의 政治·經濟·軍事 등 各 部門에 日帝強占時代의 附日勢力이 溫存하게 했다. 그 때문에 4·19民衆抗爭에 의해 李承晩政

權이 무너지고 後에도 附日勢力 中心의 張勉政權이 成立될 수밖에 없었고, 張勉政權이 實施한 若干의 民主主義的 措施에 不安을 느낀 朴正熙를 中心으로 하는 附日軍部勢力이 軍事政變을 일으켜 國家테러리즘을 다시 強化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했다.

反共을 國是로 하여 일으킨 政變에 '成功'함으로서 1960年代와 70年代의 韓國을 統治한 朴正熙政權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中央情報部를 設置하여 可謂 恐怖政治를 피면서 한층 더 強化된 極右反共主義·反北韓主義를 基盤으로 한 '軍事文化'를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各 部門에 고루 扶植시키므로써 韓國社會 全般에 反民主主義的 毒素이 깊이 着根하게 했다. 朴正熙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에 의해 定着되기 시작한 '軍事文化'의 毒素은 以後 全斗煥政權·盧泰愚政權으로 이어지면서 蔓延되어 갔고, 文民政權 아래서도 그 毒素이 쉽게 解消되지 않고 있다.

朴正熙政權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은 둘째로 1965년에 大多數 國民의 激甚한 反對를 軍事力으로 彈壓하면서 美國의 強力한 '要求'에 의해 韓日協定 締結을 強行함으로서 太平洋戰爭 敗北로 물러났던 日本으로 하여금 特히 經濟的으로 韓半島에 再上陸하게 했다. 또 한편, 韓日協定 締結로 東아시아에서 韓·美·日 3角構圖가 堅固하게 形成되어 1960年代 以後 中·蘇 紛爭으로 孤立되어 간 北韓에게 強力한 威脅을 줌으로서 韓半島에서의 冷戰體制가 尖銳化하게 했다. 그것은 世界史에서 冷戰體制가 瓦解되어 간 1980年代 後半期 以後의 狀況에서도 韓半島地域의 冷戰體制만은 尙存하는 結果를 가져 왔다.

3.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

어느 國家社會를 莫論하고 國家테러리즘이 反歷史的 役割을 다하게 마련이지만, 植民地時代와 民族分斷의 時代를 겪은 韓國社會의 境遇 그것이 주는 弊害는 深刻한 것이었다.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첫째 무엇보다도 民族分斷의 主原因이 되었다는 占에서 그 反歷史性을 克明하게 들어내고 있다.

韓國에서의 國家테러리즘은 앞서서도 말한 것과 같이 日帝強占時代의 國家權力에 의해 民族解放運動을 彈壓하기 위해 처음 成立되었다. 따라서 그것이 彈壓한 主對象은 當然히 民族解放運動을 主導한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이었다. 이들 두 勢力은 日帝強占時代의 民族解放運動을 主導하는 過程에서 解放後 單一 民族國家를 建設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民族解放運動 全體 過程을 통해 統一戰線運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韓國의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은 解放後의 民族國家 建設過程에서도 그 目的을 統一民族國家의 建設에 두었고, 그 때문에 日帝強占時代 民族解放運動過程에서의 統一戰線運動은 解放直後에도 繼續되었다. 그러나 日帝強占時代 國家테러리즘의 下手人이었던 附日勢力을 再登用하고 民族主義勢力과 社會主義勢力에 대한 彈壓政策을 그대로 繼承한 美軍政時期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統一民族國家 樹立運動으로서의 統一戰線運動을 파괴했다. 그리고 附日勢力을 基盤으로 하는 反民族主義·反社會主義的 分斷國家를 成立시켰다. 美軍政時期의 國家테러리즘이 分斷國家 成立의 基礎를 마련했다는 占에서 그 反歷史性이 集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當然한 말이지만 韓國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은 둘째, 그 性格과 志向이 反民族·反民主·反民衆的이라는 점에 있다. 日帝強占時代와 美軍政時期는 말할 것도 없고 李承晚文民政權은 警察을 포함한 그 行政官僚의 大部分과 司法界와 軍事要職의 大部分이 反民族勢力으로 構成되었고, 朴正熙軍事政權은 그 위에 權力 核心部의 大部分이 舊日本軍 내지 僞滿軍 出身 등의 反民族勢力으로 채워져 있었다.

國家테러리즘이 造成한 政權이 反民主主義的 獨裁政權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히려 當然한 일

이겠으나, 그 支配權力の 核心이 日本人이건 美國人이건 韓國人이건, 그리고 文民이건 軍人이건 相關없이 모두 民衆의 支持를 缺한 狹隘한 極右反共勢力 中心의 獨裁政權이었다는 점에 一致했다.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은 그 政策路線이 反社會主義·反共主義이기만 하면, 또 그것을 標榜하기만 하면 一貫되게 維持될 수 있었다는 占에 그 特徵이 있었던 것이다.

韓國의 國家테러리즘의 反歷史性은 세 번째로 特히 反民族勢力을 民族勢力으로 紛飾하는 占에 있었다. 植民地時代와 民族分斷時代를 겪은 韓國社會의 境遇 附日勢力和 分斷策動勢力이 反民族勢力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反共主義를 指向하는 한 國家테러리즘에 의해 民族主義勢力인 것처럼 紛飾되기 마련이었다. 日帝強占時代와 解放後의 美軍政時期, 李承晩政權期, 朴正熙政權期를 통해 反民族勢力이 肅清을 避해 統治權力の 核心部에 接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國家테러리즘이 가진 反歷史性 때문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韓國의 現代史를 歪曲시킨 核心的 要因이었다.